

함글함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393

2018.4.29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고린도후서 5:17

오늘의 주요기사

- 2 신년 특집 / 더 바이블
- 3 교회소식
- 4-6 장애인 주간 특집
- 7 목회칼럼 / 사역 소식
- 8 아가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5/4(금) 금요기도회
- 5/5(토) 무지개잔치
- 5/6(주일) 어버이주일
- 5/13(주일) 성찬주일/교사주일
- 5/20(주일) 성령강림주일 / 청년주일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글함글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장애인 주간을 맞아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다.

배려와 동행, 코이노니아의 길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약 255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숫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 장애인 가운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5% 정도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가지는 확률은 95%에 육박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주차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시려는 분들께 “여기는 장애인 구역이니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 아닙니까?” 참 당황스럽게도 몇몇 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차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들보다 못하다고 천대하거나 낮게 보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의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동정이나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보다 연약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고, 비장애인들보다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양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주님의교회 안에는 예배다, 쉴뜰나무, 사랑나무 이렇게 3개의 장애인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다’는 청각 장애인들의 공동체입니다. 30여명의 청각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쉴뜰나무’는 지체 장애인들의 모임입니다. 대부분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며, 주일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고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무’는 발달장애와 자폐를 가진 아동부터 청년에 이르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모이기에 힘쓰고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신학자 존 스토틀 목사는 살아있는 교회의 지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교회, 두 번째 예배하는 교회, 세 번째 전도하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 돌보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앞의 세 가지는 참 충실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보는 교회의 역할은 사실 잘 하지 못했습니다. 돌봄은 코이노니아(Koinonia), 즉 ‘교제’입니다. 주 안에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한 형제요 자매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관련기사 4~6면

정창화목사

신년특집 /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를 깊이 생각한다 ⑥

‘마을목회’의 성서적 배경(2)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볼 기회를 갖는다. <함울함울>은 총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입수, 몇 회에 걸쳐 요약 분재하여,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본다.

목차

- 1.종교개혁과 ‘거룩한 교회’의 참된 의미
- 2.교회의 ‘거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3. ‘마을목회’,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4. ‘마을목회’의 성서적 배경(이번호)
5. 선교적 관점에서 본 ‘세상 속으로’

이러한 동기 부여는 결국 정의에 기초한 건강한 공동체의 형성이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응답임을 의미하며, 그것이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인간적인 관심사 내지는 자선의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됨을 뜻한다.

이를테면 일주일 단위로 사회적 약자인 모든 종들과 나그네들까지 쉬게 함으로써 주변의 약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명하는 안식일 규정(출 20:10; 신 5:14)이나, 이와 동일한 차원에서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명하는 7년 주기의 민족적인 축제 규정(안식년, 출 21:2-6), 그리고 50년 주기로 땅과 집과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항상 새롭게 출발하도록 명하는 안식년 규정(레 25장) 등이 그렇다. 한국교회의 마을목회 과제는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형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약성서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서 마을목회의 신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초기의 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2절을 낭독하시면서,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눅 4:17~19).

그가 공생애 기간 동안 내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복음이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곧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눅 7:22)이나, 최후의 심판에 관한 가르침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마 25:40)은 그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복음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든 자, 갇힌 자 등과 동일시하셨으며(마 25:31~46),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항상 세리들과 죄인들, 창기들, 차별당하는 여성들과 아이들

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치료해주셨다.

참으로 그에게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에 따른 차별 또는 남녀 성별에 의한 차별, 장애의 유무에 따른 차별 등이 전혀 없었다. 그의 이러한 사랑과 정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은 한 마디로 지역 공동체와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마을목회의 전형이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초대교회에서 발견되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는 이처럼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재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행 4:32~37). 이것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목회의 모델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더 바이블 (The Bible) 13

6. 모세오경

민수기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이다. 민수기는 시내 산에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만 하는 목적지에 대한 지시와 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여정을 중심으로 순환되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는 땅을 향한 지시→광야의 여정→땅 분배를 위한 지시의 구조를 갖는다. 또한 민수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중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 중심의 내러티브라는 것이다. 그래서 읽는 독자는 민수기를 통해서 제사장 중심의 공동체 즉,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주제와 구조를 가지고 민수

기의 첫 번째 부분은 1:1-10:10절로 규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로 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인구를 정비하고 지파별로 구획은 나눈다. 민수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행해야 할 사제들과 레위인의 역할을 분리하여 직무를 맡긴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공동체의 내적인 삶의 질서를 위한 지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와 나실인의 규정들과 제물과 절기 예식 등에 관한 것이다.

민수기 두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10:11-25:18절이다. 둘째부분은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유랑생활을 서술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광

야여정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최저점을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도록 한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머물렀던 약속의 땅을 떠난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점령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만 실패한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의심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원망 속에서도 그들에게 모압 땅까

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알게 해준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5:19-36:13에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공동체로 편성된 백성을 위한 약속의 땅 분배에 대한 지시와 땅 점령 이후에 상속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후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하고 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거룩한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보존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은석 목사

교단소식

평양 남노회 목사 안수식

2018년 4월 17일(화) 오후 5시 영주교회에서 열린 평양남노회 188회 노회 목사 안수 예식에서 21명의 목사 안수자 중에서 주님의교회 5명의 전도사 신주찬 전도사, 왕상현 전도사, 이상현 전도사, 이 용 전도사, 이재설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영주교회 이상협 담임목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의 설교를 통해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아 귀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으로 축하를 해주었다.

예식 중에 악수례와 성의와 스톨을 입혀드리며 안수증을 수여하고 안수위원들이 안수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세족례를 하여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집례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하며 모든 예식을 마쳤다.

목사 안수식에 참여한 주님의교회 교우들은 5분의 새로운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에 많은 축하를 했다.

함울함울



사역간증

하나원 방문 소회(素懷)

4월 21일 주일에 하나원을 방문하였다. 하나원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이미 3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1999년 5월 24일에 설립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마친 후 입소하게 되는 기관으로 본원파(안성) 화천분소가 있다 대외명칭은 하나원과 제2하나원이다.

주님의교회는 2012년 5월24일 화천분소가 설치된 직후부터 하나원의 주일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 나 역시 하나원을 방문한지가 6년이나 되었다. 그간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났었고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탈출을 할 때 부모, 형제가 바로 눈앞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차마 눈물없는 들을 수 없는 슬픈 소식들, 중국땅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가사노동을 하며 폭언과 폭행을 이겨내며 아이의 엄마로서 잘 이겨낸 수많은 자매들, 온갖 감시 속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 브로커(중국 탈출 안내자)를 알게 되어 메콩강을 건너 태국

에 있는 난민수용소로 가게 된다. 과거에는 여러가지 경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이 루트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언론에서 접하는 소식을 보면 동해바다로 어선을 타고 탈북 한 사례도 가끔은 접하기도 한다. 3~5년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표정은 늘 근심과 어두운 그림자뿐이었지만 요즘의 그들은 자신감에 가득 찬 희망의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한편으로 다행이다. 옷차림도 세련되고 나뭇잎색과 화장도 한 예쁜 자매들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USB를 통하여 우리의 한류문화를 많이 접한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에 만난 형제는 27살의 청년인데 사춘동생과 함께 동해바다에서 20일간을 표류하다가 죽기 전에 기적적으로 우리의 해군에 발견되어 하나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대에는 약 300만 명이나 굶어죽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급격히 탈북자가 증가하였으나 김정은 정권시대에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금은 두만강, 압록강은 철조망으로 원천 봉쇄되었다고 한다.

지난 주일 예배에는 하나원 입소생 총 27명중 무려 20명이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였다. 불교와 천주교는 불



과 2~3명 정도이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원에 동참한 여러 교회들의 협조와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다.

존 파이프(John Stephen Piper 美) 목사는 <삶을 낭비하지 말라 Don't waste your life>라는 설교에서 늙어서 건강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은퇴생활을 기쁘게 만끽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멋지게 사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원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은 자기 삶에 변화를 주기 싫은 것이라고 했다. 편하게 살다가 지옥에 안가고 편하게 죽는 것을 원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곳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또한 비극적인 삶이라고 하였다. 우

리 인생의 짧은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한 가지라도 봉사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주님의교회가 있어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교회의 신자라는 사실에 또한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닐 것이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해 하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그들 중에는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박인호 집사

장애인 주일 특집 | 장애인 부서 탐방 _ 사랑나무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나무

지난 4월 15일, 담임목사님이 사랑나무를 방문하셨다. 멀리서 뵈던 목사님을 가까이서 뵈자 반가웠을까, 친구들이 목사님 주위로 모여들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상현이가 부탁을 했다. 다른 친구들도 뒤따랐다.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 없어도 친구들은 기도를 좋아한다. 기도가 끝나고 어수선했던 찰나, 가양이가 목사님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요.” 모두 주의를 집중했다. “여기요. 예수님 오셨어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사랑나무. 포도나무가 포도열매를 맺듯이, 사랑열매를 맺어 사랑나무다. 주님께서 사랑의 원천인 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어간다. 사랑나무엔 서른 일곱 개의 가지가 있다. 열 네 개의 가지는 사랑나무 친구들이다. 매력과 은사가 각양각색인 까닭에 열매의 맛도 다양하다. 매주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당혹스러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갓 청소년기를 넘긴 이십대 초반에서 삼십대까지 연령폭이 크다. 중학생 지현이와 초등학생 윤서가 올해 합류했다. 나이차에 대한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잘 적응하면서 귀염둥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스물 세 개의 가지는 선생님들이다. 학생 한 사람에 교사 한 사람, 일대일 담임제를 운영한다. 눈에 잘 드러나는 약점보다 깊은 곳에 강점이 있다. 강점이 빛을 발하려면 지속적이고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그들 속 ‘하나님의 형상’이 매우 독특한 생명력을 발한다. 자주 사랑나무에서 예배드리는 한 성도님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하나님을 새로이 만난다 하신다. 그 외 선생님들은 임원진이나 찬양팀으로 온갖 실무를 담당한다. 모두 헌신적이다. 언뜻 숫자가 많아보여도 늘 새로운 선생님의 힘이 필요하다. 지난 1-2년 사이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큰 보탬이 되었다. 선생님 세 분은 올해로 9년째 섬기고 계시다 (내년이 창립 10주년이다). 억지로 할 수 없는 일, 은혜다. 친구들을 통해 내려 주신.



사랑나무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주일예배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나올 때 즐거워하는 마음을 보고 상을 주신다면 사랑나무 친구들에게 최우수상을 주실 것이다. 그만큼 이들에게 주일의 가치는 각별하다. 찬양시간은 즐겁고 활발하다. 박수치고 율동을 하며 이리저리 뛰기도 한다. 기도시간엔 정해진 순서를 따라,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기도문을 읽는다. 말씀봉독 시간에는 누구든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한다. 때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두세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모두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학교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한다. 상반기에는 1박 2일 수련회를, 하반기에는 음악회를 연다.

앞서 사랑나무 친구들이 주는 웃음과 감동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눈

물도 빼놓을 수 없다. 친구들은 인지·언어적인 면에서, 감각적인 면에서(감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다든지), 정서적인 면에서(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대개 선천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관용이 부족한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고될 것이다. 특히 성도님들께서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사랑나무 친구들처럼 장애(발달장애, 자폐성장애 등으로 표현)를 가진 이들은 대부분 대학진학, 취직, 결혼 후 독립으로 이어지는 인생 단계를 밟지 않는다. 그럴 것이, 대학이든 취직이든 이들을 위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졸업 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육아가 노동이란 것을. 하물며 체구가 점점 커져가는 자녀들의 일생을, 날로 약해져가는 육체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나 떠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게 해달라는 기도엔 눈

물을 삼킨다. 다만 몇 시간이라도 교회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으로선 교회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주님, 길을 열어주소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데 과부의 두 랍돈을 부자의 헌금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이시라면, 연약한 사랑나무 친구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이 자명하다. 그것을 믿는다면, 누구보다 사랑나무 친구들처럼 연약한 이들의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아닐까.

사랑나무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문을 두드려달라.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나무다. 함께 협력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꿈을 꾸다. 이채인 전도사

장애인 주일 특집 | 장애인 부서 탐방 _에바다

손으로 전하는 따뜻한 인사



주일 오전 11시 5층 집회실에서 에바다 예배가 열린다. 손동작으로 드리는 찬양을 마치면 설교자는 천천히 말씀을 선포하고 전면 스크린에는 말씀 내용과 관련된 자막 달린 영상이 보여 진다. 설교 중 수시로 말의 빠르기를 조절해야 한다. 바로 옆에서 구어를 수어로 통역하는 통역자에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마치면 지하 다목적실에 내려가 그 날의 설교 내용과 단어를 복습하는 성경공부를 하고 친교도 나눈다. 설교 내용을 왜 다시 복습하는 것일까. 지식과 정보를 보고 듣고 말하면서 습득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에서, 단지 보는 것만으로 같은 학습을 해야 하는 농인들의 어려움이 어렵듯 짐작된다.

주님의교회 청각장애인들이 드리는 에바다 예배는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청각장애인이라는 결핍의 의미가 있는 호칭보다는 청인에 상대되는 농인으로 불리길 원한다. 듣고 말하지 못하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도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난다. 듣지 못

한다 생각하고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 년 전에는 대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오히려 함께 할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현재 반주자를 포함하여 4명의 봉사자가 에바다를 섬기고 있는데, 대부분 연령대가 높고 봉사자 지원이 거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에바다 예배나 수어에 관심이 있으면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지하 대화의 방에서 열리는 수화교실을 방문해보면 좋겠다.

5층 집회실에서 예배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창가 책상에 올망졸망 줄지어 앉은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있었다. 집회실을 사용하기 위해 에바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어린이영어예배부다. 이들은 연신 왼팔을 쓰다듬으며 두 주먹을 쥐어 작은 손으로 농인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함글함글

장애인 주일 특집 | 미시오데이 대외 봉사

신망애복지재단 음악예배로 섬겨



신망애복지재단은 1981년에 김양원 목사에게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전문법인이다. 1990년 현재의 경기도 수동면으로 이전한 장애인 복지재단이다.

신망애복지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장애인의 복지 발전을 위한 다수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자 김양원 목사 자신 장애를 갖고 있는 분으로 오늘날의 신망애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와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일구어낸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미시오데이 찬양대는 2015년부터 신망애복지재단에서 찬양사역을 시작, 올해 4회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마지막 주일 남양주 수동면에 위치한 신망애복지재단 교회를 방문, 주일 오후 3시에 2~300여 장애인들을 음악예배로 섬기고 있다. 예배 후에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을 방문하여, 5개 팀 정도를 만나 짧은 시간이나마 마음도 나누고 손도 잡아주며 그들과 함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합심기

도를 드린다. 몇십 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순간의 눈맞춤도 그리워 봉사자들의 방문을 매우 반기는 아기 같은 순수한 장애인들, 모두가 봉사자를 너무 반갑게 맞아 준다. 그들이 스스럼없이 꺼내놓은 얘기를 들 때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울렁거림이 요동치기도 하며, 차마 다 헤아려 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먹먹함이 가슴을 꽉 채우기도 하여 항상 뒤돌아 돌아오는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과 눈망울을 가진 그들과 함께 올해에도 미시오데이 찬양대가 4월29일에 주일 오후 음악예배로 섬긴다. 세상 만물이 갖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께 드려 섬길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작은 설렘과 기대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시오데이 사역에 기쁨 부으심이 내리시길 기도드린다.

최영배 안수집사

장애인 주일 특집 | 장애인 부서 탐방 _잇딤나무

이동이 불편한 이들의 강한 믿음

잇딤나무는 유대 광야의 메마른 땅에 자라는 뿌리가 깊고 가지가 넓게 펼쳐지는 식물로 ‘강한믿음’을 뜻한다. 잇딤나무는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다리가 불편해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서이다. 현재 잇딤나무에 참석하는 교인은 21명 정도이다.

주님의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비교적 시설이 괜찮은 편에 속하지만, 그러나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곳은 엘리베이터이다. 특히 예배후 한 대 밖에 없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물론 연로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배당에서 휠체어가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엘리베이

터이므로, 예배 후 10분만이라도 휠체어 탄 교인에게 우선적인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잇딤나무를 섬기는 사역자의 강한 부탁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을 섬길 사역자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요청된다.

함글함글



장애인 주일 특집 | 인터뷰_김동관 안수집사

자신을 내려놓아 비로소 가능했을 그의 당당함

그이를 처음 본 것은 꽤 오래 전이다. 가는 곳마다 휠체어를 탄 그이와 마주쳤다. 때로 예배당 입구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고 있기도 했고, 오래전에는 부활절 예배 드라마에 배우로도 출연했다. 함줄함줄에서 장애인 주간을 맞아 교회 안과 밖의 장애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누군가 인터뷰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을 때, 모두 그이를 떠올렸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고, 흔쾌히 승락한 김동관 안수집사를 주일 실만한 물가에서 만났다.

함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장애를 입게 된 것이 언제였는지요?

김 : 두 살 때였어요. 감기가 걸렸었는데 돌팔이 의사가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놓는 바람에 소아마비에 걸린 거죠. 지금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정으로 봐서, 제 잘난 맛에 못된 인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웃음) 게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또 중풍을 겪고 죽다 살아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인 의사를 만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리 불편한 것에 대해 한탄만 하고 지냈지요.

함 :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건 언제인지요?

김 : 친구의 권유로 22년전 주님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했는데, 이제 철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함 : 사역을 많이 하시던데요.

김 : 23년간 일을 하다가 6년 전에 일을 그만두고 교회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친사 같은 양육과정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1부 안내도 하고, 새가족반도 하고, 도서부, 할렐루야 수요찬양팀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부활절 예배드라마에 참여해서 연기도 했지요. 지금은 수요찬양팀만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이사야 43장 21절)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은 어눌하지만 저의 찬양으로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 : 다른 사회 활동도 하시지요?

김 :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랑구지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지요. 그밖엔 주로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함 : 교회 안에서 불편한 점은요?

김 : 엘리베이터가 가장 불편합니다. 예배 끝나고 1층으로 내려가려면 몇 번을 놓치게 됩니다. 요즘은 건강한 아이들도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다보니 지체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함 : 주일 예배 끝나는 시간에는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지체장애인 위주로 사용하시도록 계도를 해드리는 게 좋겠군요.

김 : 식당 사용도 불편하지요.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통로가 좁다보니 다른 분들에게 폐가 되는 게 늘 민망합니다.

함 : 교회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지요?

김 : 물론 사회에선 더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곳인데, 장애인 표지는 있지만 지체장애인 아닌 분이 버젓이 탈 때도 많습니다. 같은 장애인이지만 이해하기 어렵지요.



함 : 교인 여러분께 장애인 주간을 맞아 한 말씀 하신다면?

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장애인들은 무조건 한 수 아래로 보거나 품어주어야 한다고 보거나 하는 것이 가장 장애인을 힘들게 하는 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장애인을 을로 보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을 만든 후 대등한 관계에서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비장애인의 양보와 배려만 요구하니 장애인으로서는 오히려 불편하거나 민망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의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당당한 그이의 마음이 참 건강해 보였다. **함줄함줄**

장애인 주일 특집 | 교회시설을 돌아보다

교회시설과 장애인 성도의 어려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대예배실로 들어오는 출입구는 찬양대석이 있는 반대편 비상구가 유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비상구를 통해 일단 대예배실에 들어오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비상구 옆쪽에 마련된 장애인석뿐이고, 다른 자리는 앉고 싶어도 계단을 통해서만 가야하기 때문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 담임목사님과 인사를 한 후에 헤어지고 싶어도 높은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들어왔던 비상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아세요? 몸이 불편한 청년부 장애인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중예배실로 가는 동선은 더 복잡하다는 것です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에 내려서 많은 성도들이 가보지 않은 길고도 좁은 경사로를 통해 중예배실 강단 옆의 통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교회에 다니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성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 힘든 경로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생각해보셨습니까?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성도가 그 비상구를 통해 대예배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의 입구로 들어서면서 양쪽에 있는 좁은 복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중간 로비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온 장애인 성도들도 주차를 하고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러 옵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타고자 하는 사람이 항상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지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줄은 항상 길니다. 우리 교회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성도가 대예배실에 가려면 엘리베이터 외에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많은 성도가 무심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까닭에 언제나 휠체어에 탄 장애인 성도들은 단 한 층을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빌 때까지 한참동안이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경험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2층을 빼고는 모든 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예배실로 가는 동선에 있는 화장실은 항상 이용자가 많습니다.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는 수가 모자라서인지 예배 전후로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남녀 구분 없이 동시에 1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화장실 안에는 장애인 전용 칸이 없습니다. 2층에는 아예 화장실이 없으니 장애인 성도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들을 수 있는 전용화장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행히 3층, 4층, 5층에는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칸이 있지만 동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성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화장실 문도 밀어야 열리는 문이어서 휠체어를 타고는 열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흔한 자동문을 설치해 드리면 어떨까요? 늘 가는 곳에 화장실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경험해보셨나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의교회 건물은 처음부터 장애인을 깊이 배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주님의교회 정관에 명시된 교회건물 무소유의 원칙 때문만은 아니라도 이제 와서 교회건물을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몸이 불편하지 않은 성도가 몸이 불편한 성도를 배려하면 함께 편리하게 주님의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통로에서도 휠체어나 목발을 짚은 성도가 불편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주일에는 아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화장실이 모자라도 모든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칸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직까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성도가 많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회를 고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성도가 주님의교회에 오고 싶어도 와서 다니기 힘들니까 오지 못한다는 것ですよ.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목회칼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매 주일 우리는 예배실에 들어갈 때 마다 정면 상단부에 큰 현수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교회의 연간 표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올해의 표어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결의한 2018년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 교회의 표어로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 교단의 주제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작년의 주제인 ‘다시 거룩한 교회로’와 잇닿아 있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주제들에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고,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1. 거룩한 교회

381년 쓰인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Credimus... et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

이 말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는 낱말들이 서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이고, 보편적인 교회(공교회)이며, 사도성을 지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거룩은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를 담은 ‘קָדַשׁ(카도쉬)’로, 신약에서 거룩은 ‘순결한, 완전한, 하나님께 합당한’의 의미를 담은 ‘ἁγιος(하기오스)’로 사용합니다. 종합하면 구별되어 순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을 거룩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구별되고 순

결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것으로 준비된다는 거룩이라는 말이 자기의 성을 쌓아 올려 이웃을 배척하고 무정함을 안위 받는 살인적인 도구로 곡해되어 오용되었던 것입니다.

2. 다시 세상 속으로

원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있었습니다. 중세 때 유럽 도시들의 발전을 살펴봐도 교회와 관공서가 세워지고 그 앞으로 시장이 생겨나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도 교회는 나라를 잃어 봄을 빼앗긴 시대에 마음 둘 곳이 없던 소외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날 잘못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사회의 저변에서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과의 울타리가 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 좋았습니다.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던 세상과 가깝게 맞닿아 함께 호흡하고, 서로를 위하



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되어야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될 때, 세상과 다른 가치기준들이 통용되고, 주님만으로 배부르게 될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교회로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7:21)

박주영 목사

사역간증 / 환경사역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다녀오다



4월 9일 아침 7시 반 환경사역과 원전시설에 관심이 많은 42명을 태운 버스는 경주를 향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먼저 한수원 본사를 방문하여 국내외 원전동향, 안전성, 경제성, 필요성 등에 대한 현황 설명과 원전 주요기기 및 격납건물 모형, 국내원전 24기 구석구석을 감시, 관리하는 종합 통제실을 돌아보았다. 어른 팔뚝보다 더 큰 철근들로

뻥뻥하게 시공되는 1.2m 두께 원자로 건물은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사고에도 방사능의 외부누출을 차단하고, 다중방어 안전시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검증한 우리의 원전, 발전원가가 60원/kw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다는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동해 바다 주상절리, 보문단지의 아름다운 호수와 주변 산책로에 만발한 벚꽃 길을 거닐면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가 절로 나와 같이한 모두가 합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으로 달려갔다. 홍보전시관에서 본부현황 설명과, 원전시설 전시물들을 돌아보면서 70년대 원전 역사가 시작된 현장에서 작년에 영구 정지된 1호기를 비롯하여 현재 7기가 운영, 3기가 건설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단지를 보니 그 규모가 놀라웠다.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하니 우선 공사장 규모가 어마어마함에 놀랐다. 현재 UAE에 건설중인 동일한 노형으로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등 100% 우리가 개발한 입증된 최신기술로 UAE 수출계기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고, 사우디 영국 등 원전 건설을 준비 중인 국가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경쟁을 갖출 때까지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과 해외 수출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원전 필요성이 피부로 느껴졌다. 또한 UAE에 수출한 원전 4기가 금년부터 차례로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니 우리의 원전기술이 세계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이 피곤함을 잊게 했다.

홍계옥 집사 / 4교구

아기나들이



차 건 아기

2018년 2월 13일생

1. 주일을 기다리며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고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2. 삶의 순간마다 좋은 친구와 스승을 보내주시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기가 되게 해주세요.
3. 의의 길을 택하는 명철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빠 차 호 / 엄마 김경진, 2018년 4월 22일 3부 예배

2018년 상반기 회계교육

4월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층 소예배실에서 각부서 교역자, 부서장, 지도권사, 총무, 회계 등 90여 명이 참여하여 회계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회 봉사의 기본정신과 헌신의 자세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예산의 계정항목과 정해진 목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방법과 각종 서식의 종류와 사용된 영수증 처리에 대한 내용이 특히 강조되었다.

소예배실 책상 교체 및 유아부실 새단장



4월 23일과 24일에 걸쳐 교회 1층 소예배실 의자의 팔걸이와 부착식 책상 교체 공사가 있었다. 설치한지 오래된 팔걸이와 책상은 필름지의 일부가 벗겨지고 훼손되어 안전과 미관이 문제였다. 이번에 의자는 그대로 두고 부분교체가 이루어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아부실 벽과 천장, 출입문을 새롭게 도장하여 깨끗하게 단장하였다.

모임 간증

권사회 산상기도회



권사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86명이 용인시 고기동에 있는 동산교회 수지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산상기도회를 가졌는데 은혜받을 조건들이 충분했습니다. 날씨, 장소, 환경, 음식, 한마음, 감사 등 한 가지도 미흡함 없이 은혜 받았기에 너무나 감사한 산상기도회였습니다.

강사로는 1부 이재설 목사님이 목사 안수 후 첫 설교를 해주셨고, 2부는 장수현 목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분위기가 익어갈 즈음 여기저기서 쿨적쿨적,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안수하셔서 갈급했던, 그리고 너무나 갈증을 느껴왔던 산상기도회에서 목청껏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하며 또 오랜만에 잊었던 방언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을 순식간에 울보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권사회는 기도하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으며, 서로 격려해주며, 더욱 돈독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기대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영남 / 권사회

제5회 통일선교학교
하나님의 나라 - 통일을 살라!

하충엽 교수
송실대 기독교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장



윤덕룡 박사
KPI 대외경제정책
선임연구원 한반도평
화연구원 원장



송신복 목사
탈북민 출신
평택 하나비전교회
담임



김영식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통일선교 담당
포타미션 대표

일시 : 2018년 5월 17일(목) ~ 6월 7일(목)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 주님의교회 3층 초등부실

대상 : 통일한국을 마음에 품은 모든 성도와 청년

접수 : 교회 로비(회비:만원)

모십니다

주차안내부 여성봉사자를 모십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의 각종 특별 성회나 행사가 있을 때, 주님의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을 안내하고 교통 주요 지점에서 보행을 지도하실 여성 성도를 모십니다.

봉사지역 : 지하철 출구, 정문 횡단보도, 대예배당 앞과 수위실 사이, 운동장 입구, 쪽문 앞

봉사내용 : 횡단보도 등 교통 주요 지점에서 보행을 돕고, 장애인과 영유아, 어르신 등 노약자에게 우선적인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일

지원자격 : 주님의교회 등록 성도로서 주어진 임무에 순종하는 마음과 성실하고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역할 수 있는 성도

문의 : 권승환 안수집사 (010-5217-8386)

준비된 결혼이 행복하다 ~ 18기 결혼예비학교

2018. 5. 20 ~ 6. 3(3주간) 매주일 4~8PM

- | | |
|-----------------------------|------------------------------------|
| 1강. 성경적 가정의 이해 |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 &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 |
| 2강. 닮은 듯 다른 우리 : 공통점과 차이점 | 회비 : 각 커플당 8만원(식사 및 간식, 관련도서, 기념품) |
| 3강.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 의사소통 훈련 | 장소 : 주님의교회 1층 유아부실(썬트네) |
| 4강. 가난한 듯 부요한 우리 : 성경적 재정 | 신청 : 4.22(주일)부터 4층 교역자실 간사데스크 |
| 5강. 친밀한 부부의 성(性) | 문의 : 허 준 목사 010-5450-5308 |

알립니다

1. 교구 연합 금요기도회(주관 : 8교구)

일시 : 5/4(금) 오후 8:00~9:30 대예배실
모든 교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2. 2018 어린이 무지개 잔치

주제 : 다윗과 함께 떠나는 하나님 사랑이야기
일시 : 5/5(토) 오전 10:00~ 오후 4:00
장소 :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3. 어버이주일(5/6) 안내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1층 로비에서 한 가정당 1개씩 본인 직접 수령해 주세요.
대상 : 만 70세 이상(등록교인) 되신 성도님

4. 성찬

5월 성찬은 둘째 주일(13일)에 진행됩니다.

5.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예배에 참여할 교우 모집

일시 : 6/20(수) 오후 7:20 / 연습 : 5월초부터
문의 : 찬양대(배태민 집사 010.6338.3434)
주요오케스트라(안정수 안수집사 010.5445.5004)

6. 제18기 결혼예비학교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결혼한 신혼부부
일정 : 5/20, 27, 6/3 매주일 오후 4:00~8:00
회비 : 커플당 8만원 / 신청 : 교역자실(4층)
문의 : 허 준 목사(010.5450.5308)